추운 마음까지 데워주는 '침낭 나눔'

천주교광주대교구, 호남동 성당서 나눔 행사

노숙자 찾아 한달간 실태조사…90여개 지원

최창훈(51·가명)씨는 건네 받은 침낭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얼굴에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최씨가 일정한 거처 없이 폐가와 기차역을 돌며 노숙 생활을 한지는 어느덧 7년. 매일이 힘들지만 겨울 만큼은 최씨와 같은 노숙자들이 피하고 싶은 계절이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는 침낭 하나가 큰 보탬이 될 것 같다.

23일 오후 5시30분 광주시 동구 호남동 성당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주최로 '(노)숙자씨를 위한 겨울나기 침낭나눔 행사'가 열렸다.

최씨 등 광주지역 노숙자들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호남동성당을 찾기 시작했다. 두터운 점퍼와 모자를 눌러쓴 '숙자씨'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호남동성당 측이 마련한 흰 쌀밥과 뜨끈한 소머리 국밥으로 허기를 채운 최씨 등 광주지역 노숙자 31명은 저마다 오리털 침낭을 가슴에 품고 각지로 흩어졌다. 이날 광주대교구가 준비한 침낭은 90개.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앞으로 직접 현장을 돌며 남은 침낭을 나눠줄 예정이다.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은 이날 대표로 최씨에게 침낭을 전달한 뒤 "저희가 드리는 침낭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것뿐"이라며 "희망은 실패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서부터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성당을 찾은 '숙자씨'들은 기차역, 터미널, 광주천변, 지하철역 등에서 잠을 청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하루 한 끼를 겨우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도 새벽 시간에는 기차역, 지하철역, 터미널 등지에서 출입을 금지해 겨울이면 바람을 피할 공·폐가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은 복지시설에도 적응하지 못해 거리를 떠돌고 있다.

최민석 신부는 지난 한 달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숙자씨'들이 머무는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실태 파악과 상담을 진행했다. 그는 '숙자씨'들이 찬 바닥에서 종이박스와 신문지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보고 그나마 침낭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구와 상의한 끝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침낭에는 번호도 따로 새겼다. 침낭이 더러워지면 세탁 후에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위해서다.

최민석 신부는 "이번 비가 그치면 날씨가 추워질 것 같다"며 "노숙인 분들이 항상 따뜻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의 온정이 깃든 침낭 하나를 통해 몸과 마음을 데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년 가까이 노숙생활을 했다는 이용창(59·가명)씨는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침낭이 생겨 올 겨울은 어느 때보다 푸근할 것 같다"며 "너무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전남 서해안과 광주를 비롯한 일부 내륙지역에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기온은 영상 3~5도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가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호남동성당에서 개최한 '침낭 나눔 행사'에서 한 노숙자가 사회복지사로부터 침낭을 건네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15	달뜸	16:20
해짐	17:22	달짐	04:53

해상 안전 주의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고 밤부터 비가 오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차차 흐려짐	9/14	보 성	차차 흐려짐	7/13
목 포	흐리고한때비	9/11	순 천	차차 흐려짐	8/13
여 수	차차 흐려짐	11/13	영 광	차차 흐려짐	8/11
나 주	차차 흐려짐	8/13	진 도	흐리고한때비	10/12
완 도	차차 흐려짐	11/13	전 주	흐리고한때비	8/12
구 례	차차 흐려짐	8/13	군 산	흐리고한때비	7/10
강 진	차차 흐려짐	10/13	남 원	흐리고한때비	7/13
해 남	차차 흐려짐	10/13	흑산도	흐리고한때비	10/11
장 성	차차 흐려짐	6/1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먼바다	북~북동	2.0~4.0	북~북동	2.0~3.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1.0~2.0
	먼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5~3.0
	먼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5~3.0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낮음
체감온도	관심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0:06	05:38
	12:47	18:11
여수	07:42	01:14
	19:57	13:43

◇ **주간 날씨**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12/1(화)
6/9	3/5	1/5	1/8	3/10	3/10	2/11

슈퍼 엘니뇨…12월 눈·비 잦을듯

11월 강수량 역대 세번째

이달 들어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비가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해 다음달에도 많은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에 내린 비는 73.6㎜로 1973년 이후 최다 강수량 3위로 기록됐다. 강수 일수는 9.4일로 같은 기간 최고 3위다. 이틀에 하루꼴로 비가 내렸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는 147.3㎜를 기록한 2011년이었으며, 두 번째는 85.1㎜를 기록한 1993년이었다.

기상청은 "이달 들어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흐리고 비가 온 날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1도 높은 슈퍼 엘니뇨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엘니뇨는 겨울철까지 계속되면서 1950년 이후 역대 3위 안에 드는 강한 엘니뇨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엘니뇨가 발달하는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다"며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12월에는 다소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국 교육청 공동 '대안 역사교과서' 만든다

내년까지 집필…국사편찬위는 필진 47명 확정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선 장학자료·대안 역사교과서 개발에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전북·강원·충남 교육청과 공동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보조교재 형태의 장학 자료를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청은 또 전북교육청 중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보조자료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한편, 교재 범위·방향, 집필진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들 교육청 복안은 가급적 내년 초까지 교재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집필에 들어가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보조교재는 특정한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책자로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흔히 쓰인다.

광주시교육청은 아울러 인정 교과서 제작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초·중·고 역사 교육의 방향·중점사항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관련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교육청은 연구 용역을 통해 ▲교과서 제도에 대한 분석 ▲역사교과서의 방향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점과 대안 등을 살필 계획이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2017학년도부터 국정으로 전환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으로 총 47명을 확정했다. 47명 가운데 중학교 역사1, 역사2 교과서 집필진은 26명, 고교 한국사 집필진은 21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등산 야생동물 밀렵 단속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맞아 밀렵 행위를 차단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무등산사무소 측은 이 기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국립공원 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무등산사무소 관계자는 "무등산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포획, 올무 설치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시민께서는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및 신고 062-227-1187.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고 다발' 광주 계수교차로 교통체계 손질

광주시가 교통사고 전국 최다 발생 지점 가운데 하나인 계수교차로의 교통체계를 손본다.

광주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계수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가장 혼잡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빛고을대로 방면의 우회전 1개 차로를 확장하고 교차로 내 교통섬과 우회전 차로를 일부 조정해 회전하는 차량의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빛고을대로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차량이 섞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좌회전 유도 선에 색깔을 입히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정 시
인문	신 학 과	19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3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5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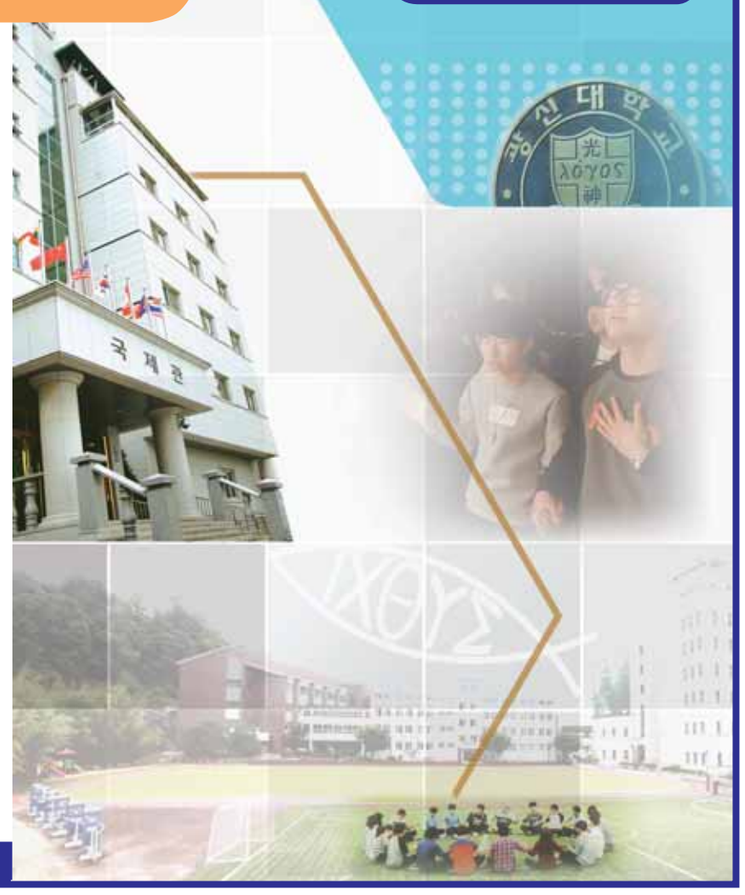
▶전형일정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 전형일 : 2016. 1. 5(화)

대 학 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5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5. 11. 23(월)~ 25(수)
• 전형일 : 2015. 11. 27(금)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